통로에 앉아 책 읽는 사람들

리포트용으로 베껴가기도… 방학 때는 더욱 급증

시내 대형서점에 가면 네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띈다. 우선 책을 파는 사람과 책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서점에서 만날 약속을 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서점에서 아예 책을 읽고 가는 사람들이다. 서가 사이의 좁은 통로에 서서, 때로는 아예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대형서점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이후 아주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고객들은 갈수록 숫자가 늘어 잡지 코너와 매뉴얼북, 아동용 그림도서 코너 등은 발디딜 곳이없을 정도인 데다 최근 들어 방법도 무척 다양하고 대범해져 서점 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만들고 있다.

바닥에 앉아 신발까지 벗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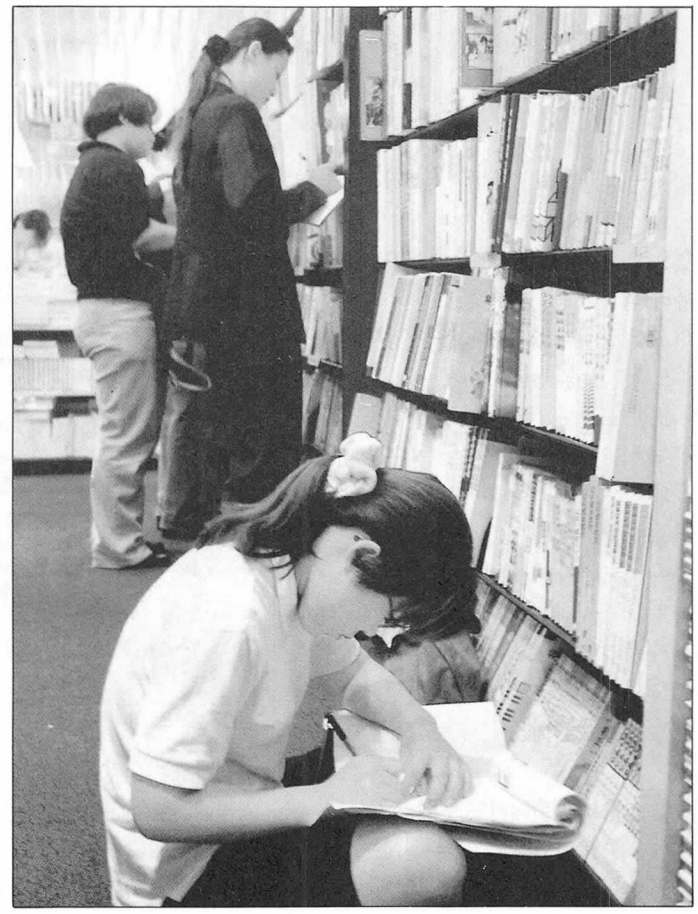
예전처럼 미안한 듯 구석에 서서 책을 읽는 모습은 이젠 클래식으로 통한다. 가장 흔한 장면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책을 읽는 것이고 어떤 고객은 신발까지 벗고 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매장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의자에 천역 덕스럽게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나, 정리하기 위해 쌓아놓은 책 위에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들조차 흔하다. 시내 대형서점 매장의 한 직원은 낚시의자처럼 보이는 보조의자를 가지고 와서 책을 읽으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제지한 적도 있다며 고개를 흔든다.

요즈음 부쩍 늘어난 방법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베껴 가는 것. 주로 대학생인 듯 보이는 고객들이 몰려와서 리포트 자료를 베껴 가는 것은 시내 서점 어디에서나 눈에 띄고, 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을 베껴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책을 베끼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여러권의 책을 옆에다 쌓아놓고 베끼는 사람에서부터 도안이나 설계도 같은 것을 습자지를 대고 베끼는 사람들, 심지어는 녹취기를 가지고 와서 책의 내용을 녹음하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시도하는 '첨단형'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후가 좋지 않은 여름과 겨울에 급증한다는 것이 서점들의 공통된 의견. 각급학교의 방학이 겹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서점 직원들은 "이들중 다수가 상습적으로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을지서적의 한 매장직원은 "한 계절 내내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이틴 로맨스 소설을 두권씩 독파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한다. 서점이 문을 여는 시간에 출근해서 점심 때 바로 옆 패스트푸드점에서 요기를 하고 다시 와서 책을 보는 사람도 흔하다.

지나는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통로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런 고객들은 서점측에는 커다란 골치거리. 그러나 교보, 영풍, 종로, 을지 등 시내 대부분의 대형서점은 이런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불청객이 가장 많이 들끓는 곳이 교보문고. 바닥이 차가운 돌이 아닌 카펫이기 때문이다. 조사홍보과의 위성계 대리는 "하루에 이런 고객들이 대략 200명 정도에 이르지만, 그들도 분명 고객이므로 너무 심하다 싶지 않은 경우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서점의 방침"이라고 말한다. "이미 시내 대형서점은 서점의 기능뿐 아니라 문화공간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통로에 앉아 책을 보거나 베끼는 '불청고객'들이 서점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같은 대응방침은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다른 대형서점도 마찬가지. 을지서적 홍보실의 황선옥씨는 "책을 훼손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입장이나 책을 오려가는 등 훼손했을 경우는 도범과 마찬가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책을 읽고 가는 사람과 꼭 결부시킬 일은 아니지만, 사실 책을 오려가는 문제는 서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다. 반품할 수 없는 외국 수입서적 등의 경우 서점측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서점에 와서 책을 읽거나 베껴 가는 사람들의 변은 의외로 간단하다. "책이 많고

주요취급간행물

신 문 :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외
시 사 :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외
컴퓨터 :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외 다수
패 션 :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외
기 타 :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외

세계의 신문·잡지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를
리드하는 GREEN 기업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 (02) 735-5401/3
■ FAX주문 :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

서가 사이의 좁은 통로에 서서 때로는 아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리포트를 쓰기 위해 책을 베끼기는 흔한 일이고 심지어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책의 내용을 녹음해가는 '첨단형' 등 불청객들이 서점가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찾기가 쉽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다는 한 학생은 "과제물이 있을 때 자료를 베끼기 위해서 종종 온다"고 말하면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최근에 출간된 책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려 해도 해당학교의 학생증이 없으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다른 학우들도 과제물을 준비할 때 도서관이 아닌 대형서점을 더 자주 찾는다"고 덧붙인다.

책을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책 내용 전부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비싼 책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현실적인 이유를 댄다.

소설을 읽으러 가끔 온다는 일군의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가깝고 시원한 데다 내부에 패스트푸드점까지 있어 마땅히 할일이 없는 날 오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저 쪽에 있는 애들도 우리학교 애들"이라며 반대쪽 서가를 가리킨다.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른 일도 아니고 책을 읽느라 그런건데 이해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패션잡지를 열심히 보고 있던 직장여성은 "잡지들이 새로 나오는 월말에 꼭 한번씩은 시간을 내서 온다"면서 한번 보고 말 책을 사는 건 낭비라는 당당한 반응이다.

이런 유의 사람들 외에도 실제 대형서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꼭 책을 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새로 나온 책들을 둘러보기 위해, 혹은 서점에 설치되어 있는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대형서점은 하나의 문화공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형서점이 도서관이 해야할 역할까지 하나둘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지적재산권에 관련되어 '복사문화'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같은 기현상의 해결방안은 국가차원의 '도서관 활성화 대책'인 듯싶다.

——허 연 기자

'96 우수학술도서 지원 안내

한국출판금고는 출판문화의 뿌리이자
교양도서의 바탕이 되는 학술연구서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우수학술도서 출판을 장려하고
출판기업의 질을 높이는 바람직한 출판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도서 지원사업"을 집행하오니
많은 출판사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1종당 250만원 (인세 및 조판비 일부지원)

2. 대상도서 : 1995년 9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에 발행된 초판도서
(단,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도서는 제외)

3. 선정분야 : 총류, 역사, 종교, 철학, 문학, 예술, 사회과학, 과학기술

4.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 1996. 7. 10 - 7. 31 (18일간,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도서 2부
- 도서내용 개요 (A4 용지 (500자 이내) 1매, 한글 WP로 작성)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한국출판금고 사무국 (☎ 732-1434-5)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송
  (단, 우송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기 타

- 선정된 도서의 광고 등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사실을 공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1996년 월 일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TOTALILLUSTRATION CO.
포인트앤라인
일러스트레이션 · 디자인전문회사

POINT-LINE

포인트·라인은 픽쳐북·스토리북·표지일러스트와 카렌다·카드·참고서·교과서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유화,지점토,모래 그림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들대상의 출판과 아동출판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

Tel:(대) 02-3492-0091~2 Fax:02-3493-0192 전화주시면 포토폴리오를 갖고서 찾아뵙겠습니다.